

변화의 힘: 사랑과 끈질김

글. 총재 장세호

로타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다. 세상을 좀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하여,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화로운 공존의 생태계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모인 평범하지만 목적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도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없다면 얼마 못 가 힘을 잃어 버리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모두가 힘을 합하여 긍정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내부적인 변화의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만 한다. 모든 움직이지 않는 생물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특징은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진정 우리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민감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나아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모델이 되어 조직전체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이끌어 가려는 사람은 단순한 지도자의 영역을 뛰어넘어 영웅이라는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진실된 변화를 이루어 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변화라는 간판을 단 조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1)변화를 말하는 사람; (2)변화를 시도해 보는 사람; 그리고 (3)변화를 실지 이루어 내는 사람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변화를 말하지만, 실지 자기가 말한 변화를 시도도 해 보지 못하고 임기를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끔 변화를 어렵게라도 끝까지 노력하여 시도해 보는 사람도 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어렵지만 혹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온갖 힘을 다해 작은 변화일지라도 실지 이루어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조직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실지 변화를 이루어 내는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을 갖추었기에 변화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그 비밀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리더십일까? 리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일까? 아니면 리더의 성격과 풍성한 끈임이 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성공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로타리와 같은 자원 봉사조직의 경우 일반 조직들과는 다른 성공요소가 필요하다.

자원봉사 조직에 있어 변화의 힘은 “사랑”과 “끈질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자원봉사조직을 유지하

는 것은 사랑 바로 그 자체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되었던 변화의 궁극적 목적 역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는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을 충분히 보여 주어야 한다. 사랑이 없는 리더를 따라가는 자원조직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리더는 변화의 고객이 누구인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많은 경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자체가 변화의 고객이다.

그렇다면, 리더는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자신해서 리더의 변화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자연스러운 교육과 토론을 요하게 된다. 리더는 중요한 변화의 가치와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위사람들도 리더화 같은 변화를 꿈꿀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교환과 이해를 위한 열린 소통의 장을 자연스럽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리더의 비전 외에도 다른 비전들을 함께 논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사랑은 입을 열고 귀를 열게 해 준다. 사랑의 힘 그것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 준다.

끈질김이 두 번째 성공요소다. 과거의 리더는 강해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 리더였다면, 변화로 둘러 쌓인 지금 이 시대의 리더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금방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끈질김을 영어로 relentless라 한다. relent라는 단어는 거부하다가 마침내 동의하다 혹은 기세와 강도 등이 수그러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relentless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목적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뜻한다. 리더는 인기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따르지만, 리더가 인기가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질 때도 있다. 어떻게 되었던 리더는 변화의 목적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 어떤 환경의 변화가 들이닥쳐도 옳다고 판단된 변화를 일으켜나가기 위해서는 묵묵히 그 변화의 방향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끈질김은 고집과는 다르다. 고집은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품을 때 혼자서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우기는 것이다. 그러나 끈질김이란 주위의 사람들과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와 합의가 있으나 그 방향으로 전진해 나아감에 있어 너무 힘이 들어 모두가 포기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는 열정과 결심을 뜻한다.

로타리는 사랑과 끈질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조직이다. 내부적 발전을 위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외부적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소아마비박멸과 같은 질병예방봉사에 있어 사랑과 끈질김은 절대적 성공요소가기 때문이다. 사랑과 끈질김은 로타리리더들의 표적이다. 🌻

